

# 주부신행담 나를 향해 마주앉아 ㉔

나는 알뜰한 마음을 가지다가 부끄러운 꼴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한 5-6년 전이다. 그때는 전혀 불법을 모르던 때였다. 가을이면 가게 앞에 낙엽이 쌓이곤 하여 한 쪽으로 쓸어 놓곤 하였다. 새로 오신 미화원 아저씨는



그림 · 이준석

그러나 혼자 책과 테이프로만 불교를 대하다 보니 순서가 바뀌는 까닭으로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부처님의 자세한 말씀과 일대기를 몰라서 올해 초에 구입한 책이 있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성전>. 나는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보고는 책을 앞에 놓고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불교성전>. <한마음 요전>. 나는 이 두 가지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운하 큰스님이 이루신 역경원에 대하여 후학들이 하시는 역경사업의 부족한 경비를 물질로는 조금도 도움을 못드리고 다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격려와 갈채만 보내는 형편이라 슬프다. 불교를 알고 싶어하거나 또 조금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두가지 책을 열심히 권하고 있다.

가게가 쉬는 일요일이면 가까운 유서길은 사할에 가서 기도를 한다. 대구에는 팔공산이란, 불국토나 다름없는 엄청난 품을 가진 성스러운 산이 있다. 골골에 사할이며 부처님이 아니 계신 대가 없도록 서라벌 신라 시절에 벌써 다 이루어 놓은 산이다. 마음만 있으면 잠깐 사이에 천 삼 사 백년이 넘는 고찰에 가서 우리의 선조가 순백의 마음으로 기도하던 도량에 나도 함께 할 수가 있다.

성스러운 법당에 가서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고 마음으로 향을 사른다. 이 마음의 촛불은 켜는 수고도, 꺼지는 안타까움도 없다. 그리고 백 팔배를 한다. 간혹 스님이 오셔서 경을 외우시고 목탁을 두드린다. 그러면 나도 따라 기도한다.

부처님, 지금 이 스님 목소리에 기운이 없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또 쉽게 건설하시고 큰 스님 되시고 성불하시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지금 이 법당에서 기도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혼자 절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성불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지금 제 앞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힘써주는 목소리로 글하게 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주 절박한가 봅니다. 이 분의 기도부터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선을 지향할 때만 들어주십시오."

입으로는 서툰 경문을 따라 외우라. 마음으로는 이런 말들을 하라 혼자 아주 바쁘다.

한 십여년 전의 일이다. 내 가게 위쪽에서 생선을 파는 오십대 아주머니가 있었다. 배움도 없고 태생이 매우 거친 분이어서 거칠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마구 거칠게 행동하는 바람에 자신이 휘두른 칼에 자신이 찔린 듯 상처난 모습으로 시무룩히 앉아 있던 했다. 나는 그때 찔림도 했지만 왠지 그분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

내가 쓸어 놓았다고 짐작을 하는지 내가 쓸어 놓은 것을 퍼 담을 때면 눈초리가 험악했다.

나도 "저 아저씨는 별꼴이네.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할텐데 눈빛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치뜨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이거 누가 여기 쓸어 놨어요?" 하고 큰 소리로 따졌다. 그래서 나는 잘난 듯 나서며 "제가 쓸었는데요. 왜요?" 하고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마주 쳐다 보았다.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따지다니. 그렇게 생각하며 얼굴을 발뺌 들고 쳐다 보는 내게 그는 "쓸었으면 저기 봉지에 넣어 놓아주세요. 여기엔 왜 두

##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갈때 내 속의 나는 언제나 나와 하나

다. 한번은 살기가 힘들다고 무심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럼 사는 게 큰 일이고 돈 버는 게 큰 일이지. 그것도 풀렸나?" 생각지도 않고 던지는 말에서 나는 깊은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었다.

"사는 게 큰 일." 그렇다. 사는 것은 큰 일이다. 얼마나 큰 일이면 범용 큰스님께서 "이생안 난 생치고 용맹장진하지"고 하셨을까. 바르게 사는 것은 정말 큰 일이다. 수없이 몸으로 익히고 의식으로 강조하고 다시 고쳐 잡을 수밖에. 개개인의 양심은 그야말로 근수가 다르다. 그러하기에 나의 이익도 그것이 사회정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닌 때는 간단히 버릴 줄 아는 삶. 자신에게 엄격하고 단호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없어요?" 하고 쏘아 부쳤다.

생각지도 못한 그 한마디는 나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말았다. 그렇다. 이왕 좋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다른 사람이 더는 손대지 않게 마무리를 찾아야 되는 것을. 그 사람의 의무라고 넘겨 두면서도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알파카기 그지없는 의식의 발로였다. 나는 그 순간 불현듯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래, 뺨 내미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아이고 아저씨,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안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담담 쓸어 담을게요."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 이 기억은 참으로 생생하여 그 후 다른

일들도 언제나 그 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 후 그분과는 아주 사이좋게 지낸다. 이처럼 바르게 살기란 나같이 선근이 없는 사람은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 아주 어렵다. 그러나 하루에도 열 두 번 나를 찾으려고 애 쓸 수밖에.

얼마전 나 혼자 잠시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 결단코 너를 만나야 된다. 만나고 말리라.' 하고는 이를 안다물고 나를 향해 마주 앉아 버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나는 나를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언제나 자주.

미련하여 내 속의 나를 형체가 있듯이 생각하고 만나려고 했지 내 속의 나는 언제나 나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나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그 순간은 내가 바르게 생각할 때, 편견없는 눈으로 바르게 볼 때,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걸어 갈 때, 내 속의 나는 언제나 나와 일치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

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나고 가면 간단한 것들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왜 그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것도 선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녹음기에서 스님의 영불음이 들려오자 마음속 밑바닥부터 환희심이 솟구치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 모습이 마치 녀마와 같은 생각이 들어 아주 처참한 기분 속에 헤멜 때가 많았다. 그 때는 왜 그리도 남과 같은 기분이었는지.

승가에 몸 담기에는 늦어 버린 지금,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도 잿빛의 옷을 입은 듯이 살고 있다. 내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인지 이제는 세상에서는 아무 것도 마음 끌리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불행주야 사랑할 것들도, 즐거워 할 것들도, 나를 즐겁게 할 것들도 없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듯한 이 출가본인 느낌. 아무리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더 기쁜 이 생활, 이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커다란 가르침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최순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7>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이홈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아주 작습니다.

#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 주머니 속 대장경

00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해침의 묘리를 본다.

'좌 팔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상전 '菩提道次第'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할지를 일깨워 준다.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조선 시대 선사 4인의 선사 모음집

모든 증명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뜻깊은 음성 '선상천하유아독존'

101 - 교리·입문권

102 - 교리·입문권

201 - 생활불교권

202 - 생활불교권

301 - 선(禪)권

302 - 선(禪)권

303 - 선(禪)권

401 - 문학권

501 - 문화·학술권

502 - 문화·학술권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화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팔곡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푸라도 공저 김홍근 번역 86 번정 290쪽 / 값 5000원

0대일 지음 86 번정 198쪽 / 값 4500원

조철 스님 편역 86 번정 176쪽 / 값 4000원

혜능 스님 엮음 86 번정 204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승(大乘) 스님 옮김 86 번정 278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승(大乘) 스님 옮김 86 번정 278쪽 / 값 5500원

관영조 지음 86 번정 336쪽 / 값 6000원

이종현 지음 86 번정 282쪽 /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86 번정 192쪽 / 값 4000원

김종서 지음 86 번정 192쪽 / 값 4500원

어서이문 아시아문은 '물은 반 천의 어긋남도 없이 전해왔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종로구 전차동 110-30 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